신년맞이 예배

마 문철 / 목사 · 세길교회, 예배학 전공

1. 들어가는 말

1994년 한 해는 돈에 미친 사람들이 해놓은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확인이라도 시켜주는 것같은 해였다. 한 해 동안 일어났던 모든 안좋은 일들이 사람들의 돈에 대한 욕심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성수대교 붕괴도 기업가의 돈 욕심에서 생긴 것이오, 지존파의 살인행 각도 돈 욕심에서 생긴 것이요, 세금 도둑들도 돈 욕심에서 생긴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돈이다. 기독교는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러한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었는가 신앙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얻을 수 있다. 구약성서의 대부분의 우상들이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 기이하게 보이는 것 같은 말씀들이 대개는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들이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세기 염소를 여미염소의 것과 함께 잡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이 다산을 기원하는 가나안 사람들 풍습이었기 때문이다.

신년을 맞이하여 또 세상의 풍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는 없다. 진정한 희망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하고 마음을 둘아야 한다. 세상을 향하여 누가 참희망을 주고 바로 방향을 잡아 줄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은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할 수 없다. 예배의 이와 같은 기능에 대해서 예배학자 J 존 알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배는 이 상태의 인간이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세상이 그들의 근원과 궁극적인 운명, 즉 하나님의 영광에 해야하는 것을 계발한다. 예배는 인간과 세상에 한번 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의도되어야 할 본래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국면이다. 예배만이 그 자체를 위한 시간도 장소도 아니고 세상을 위한 것이며 세상을 위한 대리적인 역할에 의한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과 피조물이 되어야 할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대리적인 성격이라고 말하는데 그 대리적인 것은 그 자체가 세상을 위한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더 이상 성취할 수 없거나 아직 성취하지 못한 일들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 대해서 뿌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예배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며, 결코 놓여버리지 말아야 할 과거와 약속이 담긴 미래를 보여 주어야 할 이유가 있다. 예배가 없으면 세상은 확실히 불모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예배가 단지 하나님의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은 우리의 한국교회 예배가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필요는 금년의 모든 예배가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배를 통하여 사람들과 피조물들이 되어야 할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신년맞이 예배의 초점을 맞추었다.

2. 교회력과 신년맞이 예배

교회력에서 한 해의 시작은 11월에 시작한다. 교회력에서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드리는 예배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1년을 단위로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 강조되는 것은 아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시작의 중심이 언제나 달에 있었다. 구약 성서에서 일식을 강조하고 일식에 행사가 있었지만(겔 46 : 6, 삼상 20 : 5, 18-19, 24-29, 호 2:11, 암 8:5). 특별히 신년을 축하하고 기념했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롬랑 드보르 구약시대에 신년 축제가 없었다고 그의 책 ‘구약시대의 종교풍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